

'인사이드 아웃 2' 전주서 먼저 만난다

전주국제영화제, '픽사 in 전주 with <인사이드 아웃 2>' 운영... 디즈니·픽사 특별전도 진행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주시,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협업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디즈니·픽사(Disney·PIXAR) 애니메이션 작품과, 올 6월 국내 개봉 예정인 <인사이드 아웃 2>를 먼저 만날 수 있는 '픽사 in 전주 with <인사이드 아웃 2>' 특별행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특별행사는 5월 2~10일까지 단 9일간 운영되는 <인사이드 아웃 2> 존 in 전주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인사이드 아웃 2> 뿐만 아니라 디즈니·픽사의 대표 애니메이션 <토이 스토리>부터 <토이 스토리 2>, <몬스터 주식회사> 3D, <니모를 찾아서>, <라따뚜이>, <월-E>, <업>, <인사이드 아웃>, <코코>, <소울>, <엘리멘탈>까지 총 11편의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특히 작품 상영과 함께 디즈니·픽사 출신이자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초로 아카데미상 수상자인 애니메이션 부분 분상 후보에 올랐던 에릭 오 감독, 국내 애니메이션 전문가인 한창완 세종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 이은선 영화 저널리스트 등이 픽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토크 프로그램도 열린다.

오는 5월 2일에는 국내 최초로 언론 매체를 대상으로 34분 가량의 <인사이드 아웃 2> 컷티지 상영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컷티지 상영회는 <인사이드 아웃 2>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행사 기간 내 <인사이드 아웃 2>



인사이드 아웃 2 포스터

존 in 전주 방문객과 디즈니·픽사 특별전 관람객들에게 매일 선착순으로 특별 포스터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디즈니·픽사 애니메이션을 더욱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 및 체험 이벤트들도 눈길을 끈다. 디즈니·픽사 애니메이션 OST 오케스트라 공연, 버블 발룬쇼, 컬러링, 틀린 그림 찾기, 미로, 타투 스티커, 페이스페인팅

체험, <인사이드 아웃 2> 액티비티 북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 애니메이션 OST 오케스트라 공연은 수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픽사의 애니메이션 OST를 오케스트라 선율로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5월 4일 오후 5시, 5월 5일 오후 2시 20분(전주 경기전 앞), 오후 5시 총 3회 개최된다. <인사이드 아웃 2> 존 in 전주에서 5월 4일과 5일 양일 오후 1시에 만날 수 있는 버블 발룬쇼는 비눗방울과 풍선을 이용한 환상적인 쇼로 전주를 찾은 영화 팬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안길 전망이다. 마지막 날인 5월 2일 스타일 만들어주기가 담긴 <인사이드 아웃 2> 액티비티 북, 타투 스티커, 페이스페인팅 체험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어 영화제를 찾은 시민 및 관객, 예비 관객 등이 디즈니·픽사 애니메이션을 보다 특별히 체험할 수 있을 예정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애니메이션을 선보인 디즈니·픽사의 다양한 작품과 곧 개봉 예정인 <인사이드 아웃 2>의 컷티지를 국내에서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특별행사를 전주에서 진행함으로써 전주를 찾은 방문객들과 시민들에게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매력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홈페이지 및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음악 낭독극으로 만나는 '어린왕자'

전주시립예술단 상설공연 24~27일 진행

전 세계가 사랑한 아름다운 이야기 '어린왕자'가 오는 24~27일 전주시립예술단 다목적홀에서 음악 낭독극으로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수·목·금요일은 오후 7:30에, 토요일은 오후 4시와 7시에 진행된다.

정식 판매 부수가 8천만 부가 넘고, 해적판까지 합하면 전 세계적으로 1억 부 이상 팔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 '어린왕자'는 160여 개 언어로 번역돼 오늘날에도 널리 사랑받는 작품 중 하나다.

이에 전주시립예술단은 전주시민들의 문화향유와 더불어, 아름다운 음악과 노래와 연기로 '봄'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음악 낭독극 '어린왕자'를 제작했다.

이는 전주시립예술단의 특성을 살려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은 물론, 샌드 애니메이션과 배우들의 생동감 넘치는 소설 낭독을 통해 오감을 자극하는 입체적 '음악 낭독극'이 펼쳐진다. '어린왕자'를 통한 전주시립예술단만의 색깔 있는 레퍼토리를 확보하는 한편,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작품의 연출을 맡은 정경선 연출은 "'어린왕자'가 지금도 많은 독자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어린 왕자라는 연약하고 순결한 어린이의 눈을 통해 잊히고 등한시 되던



진실들을 하나씩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작품의 본질을 시작하는 것에 연출의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관람 할 수 있는 가족극으로, 공연장을 찾은 전주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힐링 공연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티켓은 무료며, 예매는 나무길에서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서울대와 전통한지 문화예술 발전 협력

조형연구소 미술품보존연구센터 미술대학·동양화과와 협약 체결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이 한지예술 진흥을 위해 서울대학교와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전당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대학교 송광자 미술도서관에서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미술품보존연구센터미술대학, 서울대학교 동양화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내용은 △전통한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 △한지활용 관련 교육·전시 기획 등 프로그램 공동추진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전시·행사 콘텐츠 제공 및 활용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의 이용 협조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당과 서울대 조형연구소 미술품보존연구센터는 한지의 보존과 연구, 지속적 아카이빙을 진행하는 등 우수한 전주한지로 미술품을 보존하는 데 있어 기능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장기적 학문 연계를 도모할 것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 미술대학 동양화과 교수 및 재학생들은 전당에서 운영 중인 전주천년한지관 시설을 방문해 전주전통한지를 제조해 보고, 한지의 물성과 조형성을 탐구해 보는 등 학생들에게 향후 작품 활동에 소재의 다양성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지난 22일 서울대학교 송광자 미술도서관에서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미술품보존연구센터미술대학, 서울대학교 동양화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대 조형연구소 미술품보존연구센터와 미술대학 동양화과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소장 중인 18세기 '전주지도'의 복본을 선물, 전주시 사대문 안팎을 그려낸 회화식 지도로 현전 하는 가장 이른 전주지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신하순 서울대 미술대학 동양화과 학과장이자 조형연구소 미술품보존연구센터 센터장은 "이번 협약 이후 진행되는 전주천년한지관에서 일정이 작품을 대하는 작가로서 한지라

는 매체, 그림의 지자체·바탕재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정으로 기대된다"며 "전당과 전통한지의 본고장인 전주한지로 미술품보존연구센터의 학문적 아카이빙을 추진하는 것 또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전했다.

김도영 원장은 "양 기관이 그간 집대성한 자원과 인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면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 위상을 확보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인 한지의 진흥 및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춘향제의 기억, 듣다' 특별전

남원시, 제94회 춘향제 맞아 27일~9월 29일 진행

남원시는 제94회 춘향제를 맞아 춘향제의 기억을 담고 있는 다양한 소리를 통해 당시를 추억하고 공감하는 특별전을 오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근현대기록관 남원다움에서 펼친다.

이번 특별전은 눈으로만 보는 정적인 전시가 아니라, 평소에는 잘 인지하지 못하나 사람의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리를 통해 춘향제에 얽힌 희노애락을 공감하는 전시이다.

전시실에는 춘향제는 큰 판이 벌어지고 그곳은 어린이와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 화합하고 행복을 나누는 판으로, 판 위에서 소리를 겨루고, 모래판 위에서는 힘을 궁터에서는 활쫓기를 겨루고 시에 음률을 더해 시조로 겨룬다.

춘향제 판의 소리는 추억을 자극하는 목소리 액자에서 들려오고 관람객들은 익숙하거나 혹은 들을 수 없었던 춘향제의 다양한 소리와 이야기들을 함께 즐기는 공감각적 아카이빙 전시가 주요 내용이다.

'남원다움관'(남원시 검림1길 14)은 남원의 근현대 기록전시 및 각종 체험콘텐츠를 갖추고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 운영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특별전을 통해 남원 문화



의 힘이 이끌고 온 100년 춘향제의 기억을 소리라는 매개체를 통해 소환하고, 다음 세대 전승을 통해 춘향제가 대한민국 일상의 문화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투 기자



태권도원, 유채꽃 활짝... 개원 10주년 기념 4월 한 달간 무료입장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태권도원 개원 10주년을 맞아 4월 한 달간 무료입장과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유채꽃'까지 만개하며 태권도원 방문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지난 22일, 태권도원 야외 복합체육시설 플라워이원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유채꽃밭의 유채꽃들이 활짝 피었다. 태권도진흥재단과 태권도원운영관리(주)는 유채꽃 관람 및 사진 촬영을 위해 꽃밭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오솔길을

만들고 태권도원 입장 후 순환버스를 이용해 '전통정원' 또는 '플레이인' 승강장에 하차하면 유채꽃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유채꽃이 이제 활짝 핀 상태라 당분간 예쁜 모습을 유지할 것이다. 유채꽃밭에서는 꽃향기와 함께 새소리, 바람 소리, 나비와 꿀벌 날갯짓 소리가 가득하다"며 "태권도원의 다양한 콘텐츠도 즐기고 유채꽃도 보며 힐링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100선 상품 공모... 7개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100선' 상품 공모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의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우수 관광기념품을 판매 지원하고, 홍보강화하는 사업이다.

공모 기간은 6월 11일까지며, 접수 기간은 6월 10~11일 2일간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응모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개인 또는 사업자로, 전북의 역사, 문화, 자연환경 등 전북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요소를 반영한 민공예품, 공산품, 가공식품 등의 관광기념품이라면 모두 해당한다.

재단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상품에 인장마크를 부여하고, 생산 장려금 각 200만원과 전북자치도 관광기념품 100선관 입점을 통한 판매와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온라인 대중 심사를 거쳐 최종 7개 상품을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사업공고 게시판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광마케팅팀(063-230-74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국립무형유산원, 줄다리기·전통연희 '전통예능의 품격' 개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윤순호)은 오는 26~27일과, 5월 24일 두 차례 열수미투 공연장에서 무형유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정통공연 '전통예능의 품격'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연은 국가무형유산 기지줄다리기를 주제로 '당겨라 줄! 나누자 북!'과, 전통연희를 주제로 한 '도는놈 뛰는놈 나는놈'을 선보인다.

먼저 26일 오후 7시 30분과 27일 오후 4시 대공연장에서 진행되는 첫 번째 공연인 '당겨라 줄! 나누자 북!'에는 국가무형유산 기지줄다리기보존회의 구자동 보유자 등이 출연하여

줄다리기에 스며있는 단결과 협동의 공동체 정신을 표현한다.

이어 5월 24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는 두 번째 공연 '도는놈 뛰는놈 나는놈'에서는 국가무형유산 고성오광대 안대천 이수자 등으로 구성된 '연희집단 더(The)광대'가 풍물, 사자춤, 남사당놀이 등 한국 전통연희의 백미를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특히, 이번 공연은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박람회'의 특별공연으로 진행된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에서 각 공연 개최 열을 전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예술인특례보증지원 신청 받아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12월 말까지 '2024 예술인복지증진센터 운영사업 예술인특례보증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술인특례보증지원은 신용보증재단과 전북은행의 개인 신용도 평가를 통해 예방전북 문예진흥 특례보증대출(3백만원~5천만원)을 받은 예술인 대상이다.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 등본상 전북특별자치도 거주자로서, 예술 활동 증명 및 문화예술 관련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예술인이 지원할 수 있다. 재단에서는 5년간 이자 금액 중 연 1.5% 이자 차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예술인의 작업실 마련, 재료·약기 구입·판매 플랫폼 구축 등에 보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